제 1 교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리주의자 모의평가 1회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 1~12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공리주의자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십진분류법(KDC)이란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찾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세밀한 분류 체계이다. 한국십진분류법은 듀이십진분류법을 모방하였으며 도서를 세부 10개 항목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는 둘은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위의 그림과 같이 한국십진분류법과 듀이십진분류법은 일부 범주에 대해서는 다른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범주를 나눠 독자가 책을 찾는 과정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가 청구기호이다.

기호	듀이십진분류법	한국십진분류법
000	총류	총류
100	철학	철학
200	종교	종교
300	사회학	사회학
400	언어	자연과학
500	자연과학	기술과학
600	기술과학	예술
700	예술	언어
800	문학	문학
900	역사	역사

[A] 예를 들어, 찾고자 하는 책의 청구기호가 '808.8 세14민 v.44 c.7'이라 하자. 이때 '808.8'은 어떠한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주는 분류번호이며 이를 통해 808이 부여된 책은 문학 중 전집 및 총서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14민'은 저자기호로 주로 저자의 성씨와 도서명의 첫문자를 연관시킨다. 다음으로 'v.44'는 권차기호로 여기서는 전집 중 마흔네 번째 책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c.7'은 복본기호로 같은 책이 최소 두 권 이상 있고 이 중 일곱 번째 책임을 뜻한다. 첫 번째 책에 대해서는 'c.1'과 같이 부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항상 청구기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자료와 구분하여 별도의 서가에 도서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별치기호도 청구기호 최상부에 표시된다.

이렇게 도서의 핵심 정보를 전달하여 책을 손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한국십진분류법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한국십진분류법이 모방한 듀이십진분류법보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주기가 불친절하단 점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도서 분류의 혼란스러움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여섯 번째 개정판까지 발간된 한국십진분류법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십진분류법은 듀이십진분류법을 모방하여 창안한 도서관에서 통용되는 도서 분류 체계이다.
② 한국십진분류법과 듀이십진분류법이 각각 다른 기호를 부여한 범주의 예시로는 기술과학과 예술이 있다.
③ 한국십진분류법은 현재 여섯 번째 개정판까지 발간되었다.
④ 청구 기호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기호도 존재한다.
⑤ 듀이십진분류법은 도서를 분류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주기가 상당히 불친절한 편이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도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제간 연구는 어떤 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는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휴하여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제간 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가 증가하는 추세가 목격된다.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 도서를 한국십진분류법을 통해 분류할 경우 어떠한 범주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①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기차의 작동 원리를 다루는 도서
② 한국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역사와 미국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도서
③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대해 모두 다루는 도서
④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역사를 연구한 도서
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를 다루는 도서

3. 다음은 어느 한 도서의 청구기호에 대하여 [A]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분석한 것이다. 적절한 분석을 해낸 학생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R
㉡338.5
㉢김332ㅁ
㉣v.2

갑 : ㉠은 현재 이 도서가 예약 중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을 : ㉡은 이 도서가 사회과학 범주에 속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 : 이 도서에는 같은 책이 두 권 이상 있을 때 몇 번째 책인지 알려주는 복본 기호가 없으므로 도서관에는 이 책이 한 권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 : ㉢을 통해서는 저자의 성씨와 책 제목의 일부분을, ㉣을 통해서는 전집 중 두 번째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갑, 을 ② 을, 정 ③ 병, 정
④ 갑, 을, 정 ⑤ 을, 병, 정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정치 체제를 ⓐ누리고 있다. 이를 분류할 때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나누거나 아니면 그 국가의 자유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이때, 각 지표는 선거 등의 제도에 따른 절차적인 정당성만 만족시키면 될 뿐인 최소주의적 관점과 이에 더해 실생활에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생각해야 하는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관찰 대상에 의미 없는 수치를 붙이는 명목 척도와 대상의 속성에 따라 상대적인 수치를 붙여 분류하는 등간 척도로 나눈다.

국가의 정치 체제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기저를 ⓓ이루는 개념은 [로버트 달의 다두정]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 경쟁과 선거의 두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당 등의 집단으로 압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쟁과 선거 등의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에 대한 척도인 참여의 두 척도를 이용하여 국가 간 상대적인 민주주의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정치 체제를 직접 비교하거나 자유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론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1946년에 만들어진 ㉠DD에서는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쟁적인 선거는 양적 변수가 아니므로 측정가능하게 조작화하여야 한다. 어느 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행정부 최고 지도자와 입법부가 경쟁적인 선거를 통하여 뽑혀야 한다. 또한, 영속적인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정당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선거 규칙 아래에서 정권 교체가 목격되어야 한다. 만약, 네 개의 조건 중 단 하나라도 관측되지 않을 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Polity V는 분류하려 하는 국가에서 정치의 참여에 규제가 얼마나 있는지, 행정부의 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제한이 얼마나 있는지, 정치 참여가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집단의 경쟁 하에 이뤄지는지, 행정부 최고 지도자 선출에 있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행정부 최고 지도자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얼마나 제한이 있는지의 지표를 측정하여 점수를 낸 후 점수에 따라, 민주주의, 권위주의, 과도 정부 중에서 정치 체제를 확정한다.

이들과 달리 비정부 단체에서 측정하는 ㉢Freedom House는 정부와 정치가 얼마나 개방돼 있는지, 부패한지, 결사의 자유가 있는지, 선거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지를 묻는 정치적 자유도와 언론 독립, 사법권 독립, 노동 조합 설립 등의 여부를 묻는 시민적 자유도를 따진다. 이때 정치적 부문과 시민적 부문의 점수의 합의 평균이 높을수록 더 자유도가 높다.

4.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중 최소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지표의 개수는 1이다.
② ㉠은 명목 척도에 속하고 ㉡, ㉢은 등간 척도에 속한다.
③ ㉠, ㉢은 ㉡과 달리 비정부 단체에서 측정한다.
④ ㉠~㉢ 중 측정해야 하는 항목이 가장 적은 것은 ㉡이다.
⑤ ㉠~㉢은 모두 국가의 정치 체제를 확정하는 지표이다.

5. [로버트 달의 다두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모두 지표를 고안하는 데에 영향을 받았다.
② ㉡과 달리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과 달리 최대주의적 관점에 속하지 않는 지표이다.
④ 등간 척도에 속하는 지표의 예시이다.
⑤ 경쟁과 참여의 두 차원에서 국가의 정치 체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지표이다.

6.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사회과학 연구에서 지표를 통한 가설 검증은 새로운 이론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때, 설명하려는 속성이 이미 포함된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동어 반복 명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각 가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하려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적절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①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보다는 더 청렴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이겠군.
②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보다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이겠군.
③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노동자의 권리가 더 보장될 것이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 ㉡이겠군.
④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정치 참여가 더 자유로울 것이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뿐이겠군.
⑤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 최고 지도자는 권위주의 국가의 행정부 최고 지도자보다는 공정한 선거 절차에 의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 중에는 없겠군.

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특유하고
② ⓑ: 공유하거나
③ ⓒ: 분류된다
④ ⓓ: 달성하는
⑤ ⓔ: 확장했다는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진법은 전자기기에서 주로 쓰이며 전자기기의 신호의 꺼짐과 켜짐에 따라 각각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진법을 이른다. 이진법에서 0과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단위를 비트라 한다. 이진법에서 양수와 음수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가장 왼쪽 끝에 있는 비트인 최상위 비트를 부호비트로 사용하여 부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4비트 기준으로, '0100'은 4가 되고, '1110'은 -6이 된다. 부호비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진법의 표현 가능 범위가 달라지며, 표현 가능 범위에 따라서 0과 자연수만 나타내는 비부호형 정수 방식과 이에 더하여 음의 정수까지 나타낼 수 있는 부호형 정수 방식으로 나뉜다. 이진법은 십진법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칙연산을 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진법을 이용한 덧셈과 뺄셈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 이진법을 이용하여 덧셈을 할 때에는 십진법에서 받아올림하듯이 만약 합이 2 이상이면 2만큼을 다음 자리로 1만큼 올리면 된다. 예를 들어, '3+9=12'를 계산한다고 할 때 4비트 이진법을 이용하여 '0011+1001'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일의 자리의 합이 2가 되므로 이 2를 십의 자리에 1로 올리는 자리올림을 한다. 따라서 1100이 되므로 이진법으로 계산해도 12가 동일하게 도출된다. 이진법을 이용하여 뺄셈을 할 때에도 십진법같이 더 큰 자리에서 2를 빌려 받아내림하여 계산하면 된다.

[A] 이진법은 단순 부호화 표기 방식으로만 음수를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통해서 음수 표현이 가능하다. 이때 어떤 수의 1의 보수는 그 수의 모든 0을 1로, 모든 1을 0으로 바꿔주면 구할 수 있고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 1을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7을 이진법으로 나타낸 '0111'의 1의 보수는 '1000'이 되고 2의 보수는 '1001'이 된다. 이때 1의 보수와 2의 보수는 음수와 0에만 적용하면 된다. 양수는 단순 부호화 표기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비트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에서 -6을 나타내려면 0110(=6)의 1의 보수인 1001로 나타낸다. 이때 -6은 단순 부호화 방식으로는 1110으로, 1의 보수를 사용하면 1001으로, 2의 보수를 사용하면 10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진법 배열이 같아도 앞서 언급된 세 개의 표기 방식에 따라 표현하는 숫자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0은 1의 보수를 활용할 때 서로 다른 2개의 배열로 표현되는 오류가 생기지만, 2의 보수에서는 오류가 해결된다. 이진법의 보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1의 보수와 2의 보수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진법의 표현 가능 범위의 최솟값을 더 작게 도출할 수 있다.

이진법은 비트 수에 따라 표현 가능한 숫자의 범위에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오버플로란 이진법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댓값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수만 나타낼 수 있는 4비트 비부호식 정수 이진법에서 1111(=15)에 0001(=1)를 더할 경우 원래 나와야 할 값과 달리 이진법의 표현 범위를 고려한 값이 도출되는데 그 값은 16이 아니라 0이 된다. 16을 나타내려면, 이진법의 원리상 비트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더플로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개수의 비트 하에서 비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댓값은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댓값보다 2배 더 큰 수이다.
② 컴퓨터는 숫자를 나타내는 데에 신호의 켜짐과 꺼짐을 사용하므로 십진법보다는 이진법이 컴퓨터에 더 적합한 진법이다.
③ 이진법으로 나타낸 숫자의 부호를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최상위 비트는 양수일 때는 신호를 꺼서, 음수일 때는 신호를 켜서 부호를 표현한다.
④ '17-9=8'을 5비트 비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으로 계산할 때에 2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때 최상위 비트에서만 2를 받아내림하면 된다.
⑤ 이진법으로 나타낸 어떤 수의 1의 보수는 그 수의 2의 보수에서 1을 뺀 것과 같다.

9.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에서 ㉠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때와 달리 비트의 수를 더 늘려주면 된다.
② 십진법을 통한 숫자의 표현 방식은 이진법을 이용한 숫자의 표현 방식과 달리 ㉠, ㉡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에서 ㉠을 통하여 음수로 표현되어야 할 수가 양수로 표현되고, ㉡을 통하여 양수로 표현되어야 할 수가 음수로 표현된다.
④ ㉠과 ㉡ 모두 제한된 비트의 개수로 인한 이진법의 경우의 수의 한계와 숫자가 가진 유한한 특성 간의 괴리로 인하여 발생한다.
⑤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1만큼 벗어나 발생한 ㉠으로 도출된 수는, 제한된 범위에서 1만큼 벗어나 발생한 ㉡으로 도출된 수보다 더 작은 수이다.

10.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개수의 비트 하에서 1의 보수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을 통하여 도출 가능한 수의 최솟값보다 더 작은 값을 나타낼 수 있다.
② 동일한 개수의 비트 하에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이진법의 모든 경우의 수는 항상 같다.
③ 비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에서 이진법이 나타내는 수와 그 이진법의 1의 보수가 나타내는 수의 합은 항상 비트 수에 따라 도출가능한 이진법 배열의 모든 경우의 수에서 1을 뺀 값과 동일하다.
④ 1의 보수로 0을 나타내는 경우의 수와 2의 보수로 0을 나타내는 경우의 수의 차는 1이다.
⑤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에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사용할 경우, 이진법을 사용하여 음수를 표현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어느 한 게임 회사가 얼마 전에 개발한 게임에 관한 설명이다.

○ 캐릭터가 달리거나 점프할 수 있게 하며 정해진 시간 안에 농장에서 작물을 얻으면서 일정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한다. 낭떠러지는 간간이 나오도록 설정한다.

○ 산삼의 경우에는 10점, 당근의 경우에는 3점, 감자의 경우에는 1점, 잡초의 경우 -1점을 얻고, 독버섯의 경우 -3점을 얻는다.

○ 점수 표기를 할 때에는 8비트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2의 보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캐릭터의 기본 점수는 0점으로 설정한다.

○ 캐릭터가 낭떠러지를 넘지 못하면 점수의 값에 상관없이 바로 바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한다.

○ 캐릭터의 점수가 0점보다 낮아지거나, 점수 한계치를 넘는 순간 바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한다.

○ 점수 한계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계치만큼만 점수로 반영하고, 0점보다 낮아 종료되었을 때는 그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게임 출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 현재, 최고 기록을 달성한 사용자의 점수는 124점으로 밝혀졌다.

○ 게임 회사 개발 과정에서의 운영 미숙으로 게임의 종료 조건 중 낭떠러지와 관련된 조건을 제외한 점수와 관련한 종료 조건이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존재함이 밝혀졌다. ……ⓐ

○ 종료 조건에 오류가 난 경우에 얻은 점수는 정정 없이 유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

① 컴퓨터가 8비트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에 대하여 2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식할 때 '산삼'에 대해서는 '11110110'으로 인식하고, '독버섯'의 경우에는 '11111110'으로 인식하겠군.

② '산삼'의 점수와 '당근'의 점수의 합을 이진법을 통하여 구할 경우와 '산삼'의 점수와 '감자'의 점수를 합을 이진법을 통하여 구할 경우의 필요한 받아올림의 개수는 동일하겠군.

③ ⓐ의 상황이 구현될 때, 사용자가 게임 내에서 10개의 '산삼', 13개의 '당근', 2개의 '독버섯'을 얻고 낭떠러지를 넘지 못하여 게임이 종료된 경우, ⓑ로 인하여 그 점수는 유지되고, 사용자는 새로운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되겠군.

④ ⓐ의 상황이 구현될 때, 사용자가 41개의 '독버섯'과 6개의 '잡초'를 얻은 후 낭떠러지를 넘지 못하여 게임이 종료된 경우, ⓑ로 인하여 그 점수는 유지되고, 컴퓨터의 인식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새로운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되겠군.

⑤ ⓐ의 상황이 구현되지 않을 때, 이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댓값은 127점이고, 이 게임을 통해 도출가능한 최종적인 점수의 값의 모든 경우의 수는 130이겠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던 과거 시험은 한(漢)의 멸망 이후 수백여 년 간 지속되었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해낸 수(隋)의 수 문제 때부터 세습 귀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새로 사족(士族) 지식인을 뽑고자 시행하였다. 과거 시험은 주로 작문 능력과 고전에 대한 이해력을 중점으로 시험했으며, 중국 내에 사대부 계층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는 이후 고려 시대에 전파되었다.

최초의 과거 시험은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雙冀)가 광종에게 건의하여 시행되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 학문적 소양을 쌓은 관료를 선발함으로써 공신 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치러졌으나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주기는 변칙적이었다. 고려의 과거제는 천인과 향·소·부곡에 거주하는 주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이외의 양인층 이상은 모두 응시가 가능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의 시험 과목은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나뉜다. 제술과는 문장을, 명경과는 유교 경전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 시험하였는데 고려 시대에서는 제술과의 능력을 더 높게 샀다. 향시 없이 중앙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던 잡과는 기술관 선발을, 승과는 승려들에게 승계를 수여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는 향시, 회시, 전시로 나뉘는 송(宋)의 과거제와 달리 계수관시, 사마시, 예부시로 나뉜다. 11세기 현종 이전까지만 해도 예부시만 시행하다가 계수관시, 사마시, 예부시를 실시하는 제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각 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계수관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가 달랐다. 개경에서는 개경시를, 지방에서는 향시를 실시하였고 합격하면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국자감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본시험에 해당하는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때, 국자감 학생들은 별도 시험인 감시를 치른 후, 합격하면 예부시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최종적으로 관리에 임용되려면, 예부시에 합격하여야 했다. 이외에도, 정규 시험은 아니었지만 국왕 앞에서 예부시 합격자의 순위를 매기는 특별시험인 ㉠복시도 실시하였다.

과거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를 선출하기도 했는데 재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천거와 일정 품계 이상의 고관이 자손을 합격시키는 음서가 있었다.

(나)

조선 시대의 과거제는 소과,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뉜다.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소과는 생원·진사시로도 불리며 시험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를 평가하는 생원시와 작문 시험인 진사시로 나뉘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생원을 더 존경하였으나, 후기에는 정반대의 경향이 목도되었다. 문과는 중앙의 문관들을 선출하고, 무과는 무인들을 선출하고, 잡과는 기술관을 선출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각 시험들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우선, 소과에서는, 초시에 각 도 별로 할당된 인원을 뽑은 후, 복시에서 최종적으로 생원과 진사를 ⓐ뽑았다. 이때 두 시험에 모두 붙은 경우 양시라 하였다. 생원과 진사는 하급 문관에 임명될 수 있었고, 조

선의 최교 교육 기관이었던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또한, 이들은 성균관에 진출한 이후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해야 응시할 수 있는 관시를 통해, 문과 초시 진출에 유리한 혜택을 부여받았다. 한편, 생원·진사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문과는 양인이라면 누구든 응시가 가능했다.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로 나뉘는데, 초시와 복시에 모두 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친림하는 시험인 ㉡전시를 실시하였다. 전시에서는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 병과를 부여하였는데, 수석 합격자인 장원 급제자부터 갑과를 부여하고, 장원 급제자부터 종6품에서 시작하여 등수에 따라 점점 시작 품계가 낮아진다. 이와 달리, 무과의 경우는 문과와 달리 신분상 제약을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이나 향리, 일반 서민 등 무예에 재능있는 자들이라면 응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무과도 문과와 같이 세 단계를 거쳤고, 복시까지 합격한 이들을 전시에서는 모두 급제케 하되 문과와 달리 갑과, 을과, 병과만 부여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잡과의 경우는 기술자를 뽑는 시험으로 일반 서민이나 천민은 응시하기 어려웠고 양반은 천시하였기에 따라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신분이 세습되었다.

조선 시대의 과거제의 시험은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의 시험의 두 부류로 나뉜다. 특히, 식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경사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임금의 권한으로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 중앙에서 개최하는 시험이 별시였다. 별시는 기존과 다른 형태로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시 개최의 빈도는 점점 늘어갔다. 시험 빈도는 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였기에 조정 진출에 있어 불리한 계층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방의 소과 합격자들은 성균관으로 상경하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에 의하지 않는 채용 방법도 있었다. 기존의 관리를 요직에 추천하는 천거, 2품 이상의 고관에 한하여 그들의 자손을 관직에 서용시키는 음서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과거제에도 신분제와 관련된 한계가 존재했다. 조선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고,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이 속한다. 과거 시험은 법적으로는 모든 양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양반가의 정실이 아닌 여성이 낳은 자식인 서얼의 경우, 중인으로 취급되었지만 문과 응시를 할 수 없는 등의 차별이 만연했다.

1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시험은 세습 귀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사족(士族)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수(隋)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② 향시, 회시, 전시로 나뉘는 송(宋)의 과거제와 달리 고려의 과거제는 계수관시, 국자감시, 예부시로 나뉜다.
③ 국자감 학생들은 예부시에 응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합격해야만 하는 시험이 존재하였다.
④ 고려 시대 과거제의 모든 시험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응시가 가능하였다.
⑤ 고려 시대 과거제 초기에는 본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으로만 구성되었으나 11세기 현종 이후 계수관시, 국자감시, 예부시의 세 개의 시험을 치르도록 개편되었다.

13. 조선 시대의 과거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원·진사시에 합격할 경우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과 관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모두 바로 충족되지 않았다.
② 증광시, 별시, 알성시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험이었고, 별시의 경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개최 빈도가 늘어났다.
③ 문과 시험에서 문과 급제가 되려면 소과를 응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④ 문과는 무과와 달리 수석 합격자를 장원 급제자라 일컬었다.
⑤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는 자는 반드시 생원시와 진사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였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국왕이 친림하여 유능한 사람을 찾아 관직에 임용시키는 방법이고, ㉡은 능력에 따라 응시자에게 관직을 차등 배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은 예부시 응시자들의 순위를 가리고자 하는 방법이고, ㉢은 당시 기술에 능한 특정 계층이 지배층인 양반으로부터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다.
③ ㉢은 당시 조선 신분제의 특성에 의한 현상이고, ㉣은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 용이하게 만드려는 지방 출신 유생들의 노력이다.
④ ㉡은 복시 합격자 중 뛰어난 일부만 관리로 선출하여 태평천하를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고, ㉣은 지방 출신의 합격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이다.
⑤ ㉡은 중앙에서 문관으로 임명될 자격을 부여하던 유일한 방법이고, ㉢은 당시 양반과 특정 계층이 결탁하여 이뤄진 조선 시대 특유의 양상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ㄱ~ㄹ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무예에 능통한 이라면 무과에 응시하여 나라를 지키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이들 중 능력 있는 인사를 선출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ㄷ.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학문적 소양과 작문 능력을 시험하되 유교 경전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지닌 자를 더 우대하도록 한다.
ㄹ. 과거제는 관리를 등용하는 절차이므로 양인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① 고려 시대 사회는 ㄱ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② 조선 후기 사회는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③ 고려 시대 사회는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④ 조선 전기 사회는 ㄷ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⑤ 고려 시대 사회는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16. 다음은 신라의 관리 채용 제도와 관련한 자료들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신라 시대에는 천거의 형식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족 신분을 세습한 이들이 선출되는 폐단이 존재했고 시험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다.

㉯ 신라 후기에는 6두품 이하의 신분을 지닌 이들 중, 당(唐)으로 유학을 떠나 당(唐)의 빈공과에 응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독서삼품과에 응시하여 관리로 채용될 수 있었으나, 본국에서 출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신라 원성왕은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이를 관리로 선발하려 하였다. 유학에 능통한 정도에 따라 하품, 중품, 상품의 삼품(三品)을 부여하여 관리로 삼고, 뛰어난 경우, 삼품(三品)을 초월해 등용하기도 하였다.

① ㉮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관리 채용에 있어 천거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양상은 (가)의 최초로 과거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송(宋) 이전 시대의 양상과 유사하겠군.

② ㉯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신분에 의한 불이익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서얼이 겪은 차별과 유사하겠군.

③ ㉰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유교 경전의 이해도에 따라 삼품(三品)을 초월하여 등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문과에서 장원 급제를 부여했던 양상과 다르겠군.

④ ㉯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신분에 따라 출세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문과 전시에서 성적에 따라 시작 품계에 차등을 둔 것과 유사하겠군.

⑤ ㉰에 따르면, 신라의 독서삼품과는 관리 채용에 있어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가)의 명경과와 (나)의 진사시가 중시한 기준과 유사하겠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목청 좋은 소리꾼이 가락을 뽑았다.
② 유권자들은 그를 차기 시장으로 뽑았다.
③ 어머니께서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았다.
④ 그는 벽에 박혀 있는 못을 억지로 뽑았다.
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남을 돕고자 피를 뽑았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송 문제 때, 충신 조 승상이 간신 이두병의 참소로 죽는다. 이에 조 승상의 아들인 조웅은 어머니와 함께 도망친 이후, 어머니를 절에 모시고 한 노인을 만난다. 한편, 문제의 서거 이후, 이두병은 태자의 황위를 찬탈한다.

이날 밤에 황제의 꿈이 몹시 흉하고 참혹하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여러 신하들을 입시(入侍)하여 꿈 속의 일을 의논할 때, 경화문을 지키던 관원이 급히 고하여 말하기를,

"ⓐ밤이 지나고 보니 문 밖에 없던 글이 있기에 등서(謄書)하여 올립니다."

황제께서 ㉠그 글을 보니,

"송나라 황실이 쇠미(衰微)하니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도다! 만민이 불행하여 국상(國喪)이 나셨도다! 동궁이 장성하지 못했으니 소인이 득세하는 때로다! 만고 소인 이두병은 벼슬이 일품이라.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이 되었단 말인가? 천명이 온전하거늘 네 어이 장수하리오. 동궁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진시황의 날랜 사슴 임자 없이 다닐 때에 초패왕의 세상 덮는 기운과 범증의 신묘(神妙)로도 임의로 못 잡아서 임자를 주었거늘, 어이할까 저 반적아! 부귀도 좋거니와,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宋業)을 끊지 말라. 광대한 천지간에 용납 없는 네 죄목을 조목조목 생각하니 일필(一筆)로도 난기(難記)로다. 이 글은 전조 충신 조웅이 삼가 쓰노라."

하였더라.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보고나서 놀라며 분기 등등하여 우선 경화문 관원을 잡아들여 그때에 잡지 못한 죄로 곤장을 쳐서 내쫓고는 크게 호령하여 조웅 모자를 결박하여 잡아들이라 하니 장안이 분분한지라. 관원들이 조웅의 집을 에워싸고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고 조웅 모자는 없는지라.

금관(禁官)이 돌아와서 도망한 사연을 주달(奏達)하니, 황제께서 서안(書案)을 치며 크게 노하여 대신을 매우 꾸짖어 말하기를,

"ⓒ조웅 모자를 잡지 못하면 조신(朝臣)에게 중죄(中罪)를 내릴 것이니 바삐 잡아 짐의 분을 풀게 하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매우 급하고 두려워하여 장안을 에워싸고, 또한 황성 삼십 리를 겹겹이 싸고 곳곳을 뒤져 본들 벌써 삼천 리 밖에 있는 조웅을 어찌 잡으리오.

(중략)

"그대 이름이 웅이냐?"

대 왈,

"웅이옵거니와 존공은 어찌 소자의 이름을 아시나니이까?"

노옹 왈,

"자연 알거니와, 하늘이 보검을 주시매 임자를 찾아 전코자 하여 사해 팔방을 두루 다니더니, 수개월 전에 장성이 강호에 비치거늘, 찾아와 수개월을 기다리되 종시 만나지 못하매, 극히 괴이하여 밤마다 천기를 보니 강호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의 행색이 짝 없이 곤박하매 분명 유리걸식하는 줄 짐작하였거니와, 찾을 길이 없어 방을 써 붙이고 만나기를 기다렸나니, 그대 만남이 어찌 늦은가?"

하며 칼을 내어 주거늘, 웅이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칼을 받아 보니, 길이 삼 척이 넘고 칼 가운데 금자(金字)로 새겼으되, '조웅검'이라 하였거늘, 웅이 다시 절하고 왈,

"귀중한 보검을 거저 주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라. 어찌 갚사오리이까?"

노옹 왈,

"그대의 보배라. 나는 전할 따름이니 어찌 은혜라 하리오?"

하고 웅을 데리고 수일을 유하고 못내 사랑하다가 이별하여 왈,

"훌훌하거니와 그대 갈 길이 바쁘니 부디 힘써 대명(大命)을 이루게 하라."

웅 왈,

"어디로 가면 어진 선생을 얻어 보오리까?"

노옹 왈,

"이제 남방으로 칠백 리를 가면 관산이란 뫼가 있고 ⓓ그 산중

에 철관 도사 있나니, 정성이 지극하면 만나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낭패할 것이니 각별히 살펴 선생을 정하라."

(중략)

도사 보기를 다하매 대경하여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어 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문 왈,

"선생이 왔더니까?"

동자 왈,

"이제야 와서 청하시나이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시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흔연 소 왈,

"ⓔ험난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도다."

하고 동자로 하여금 석반을 재촉하여 주거늘 웅이 먹은 후에 치사 왈,

"여러 날 주린 창자에 선미(仙味)를 많이 먹으니 향기가 배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 먹는 양을 어찌 알아서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이 글을 보라."

하거늘,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이는 성경현전(聖經賢傳)이라.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六韜三略)을 주기에 받아 가지고 큰 소리로 읽으니, 도사 더욱 기특히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의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의사(意思) 광활하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중략)

말이 고개를 들고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치며 반기는 듯하거늘 웅이 크게 기뻐 목을 안고 굴레를 갖추어 마구간에 매고 도사에게 청하여 왈,

"이 말의 값을 의논컨대 얼마나 하나이까?"

도사 왈,

"하늘이 용마를 내시매 반드시 임자 있거늘, 이는 그대의 말이라. 남의 보배를 내 어찌 값을 의논하리오? 임자 없는 말이 사람을 상할까 염려하더니, 오늘 그대에게 전하니 실로 다행이로다."

웅이 감사 배(拜) 왈,

"도덕문(道德門)에 구휼하옵신 은덕 망극하옵거늘, 또 천금준마를 주시니 은혜가 더욱 난망이로소이다."

도사 왈,

"곤궁(困窮)함도 그대의 운수요, 영귀(榮貴)함도 그대의 운수라. 어찌 나의 은혜라 하리오?"

웅이 도사를 더욱 공경하여 도업(道業)을 배우니 일 년이 지나자 신통 묘술을 배워 달통하니 진실로 괄목상대(刮目相對)러라.

-작자 미상, 「조웅전」-

18.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의 성찰이 드러나고 있다.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고 있다.
④ 현재 상황에 대한 인물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⑤ 편집자적 논평을 통하여 인물의 비범함이 드러나고 있다.

19.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두병과 조신은 ㉠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경화문의 관원들에게 묻고자 하고, 이후 이들을 내쫓고자 한다.
② 이두병은 조웅이 ㉠을 쓴 데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를 빌미로 조웅 모자를 찾기 위해 관원들에게 명령한다.
③ 조웅은 ㉠을 통해, 이두병이 천명에 의하여 심판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두병이 지닌 죄목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두병은 금관이 ㉠을 쓴 조웅을 잡지 못한 데에 분노하고, 조웅을 잡아들일 때까지 장안을 에워싸라고 명령한다.
⑤ 조웅은 ㉠을 통해, 이두병이 송(宋)의 대업을 무너뜨리고, 태자의 황위를 찬탈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20.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문 밖에 있는 글을 발견하여 보고함으로써, 궁궐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② ⓑ: 고사를 인용하여 신하는 군주에게 충의를 다해야 함을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이두병의 반역을 비판하고 있다.
③ ⓒ: 이두병이 조웅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조신을 협박하여 조웅을 찾고자 분주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④ ⓓ: 노인의 말에 따라 철관 도사를 만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⑤ ⓔ: 조웅이 철산 도사를 만나기 위해 고행길을 겪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웅전」의 전개는 적강 모티프가 드러나지 않고, 지상계에서만 소설이 전개된다는 점과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들과는 전개가 다르다. 다만, 조력자의 도움을 주인공이 받는다는 점과 전기적인 요소를 갖는다는 점은 다른 고전 소설과 비슷하다.

① 조웅이 노인에게 보검을 받을 때, 노인과 한 대화에서, 보검의 주인이 정해져 있고, 노인이 조웅이 보검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렸다는 데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포함됐음을 알 수 있군.
② 노인이 조웅에게 보검을 전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에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조웅에게 보검을 건네는 것이 하늘의 뜻인 만큼 당연한 이치라는 인식을 알 수 있군.
③ 조웅이 철산 도사가 권하는 책을 완독하고, 다른 책을 더 청하는 데서, 조웅이 영웅이 될 만한 비범함과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현실적 요소가 포함됐음을 알 수 있군.
④ 말이 조웅을 반기며 다가가는 데서, 하늘이 용마의 주인을 조웅으로 정했다는 철산 도사의 인식을 고려한다면, 조웅이 지닌 영웅적 면모와 비범함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조웅이 철산 도사에게 도업을 배운 지 일 년이 지나 묘술을 달통한다는 데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성장함이 드러나고 조웅의 능력이 괄목상대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ㄴ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나)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A]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滿)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B]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C]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내온다 [D]

-윤동주, 「참회록」-

(다)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자기가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삼십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與),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라고 하였으니, 아,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한 것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經禮)의 이동(異同)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疏)를 봉(封)해 올려서 조신(朝臣)의 시비(是非)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정약용, 「여유당기」-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식을 반전시키고 있다.
③ 화자나 서술자가 자신의 삶을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⑤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하여 운율을 부여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에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집의 이름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 정약용의 경우, 신중하기(與)와 삼가기(猶)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여유당기」에서는 이를 통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① '경례'를 논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 '조신(朝臣)'의 '시비'를 말하는 것, '옛 기물'을 '모으'는 것을 하지 않은 데에는 이 일들이 모두 '나'의 마음에 크게 두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은 데서 '나'의 신중한 모습이 드러나는군.
② 겨울에 시내를 건너지 않는 사람이 시내를 건너는 것은 원래 시내를 건너는 것이 그만둘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후 시내를 건널 때에는 부득이한 일로 변모했기 때문임이 드러나는군.
③ '나'가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 모르는 것과 행동하는 데 있어 의심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것은 이후 깨달음을 통해 모두 그만둘 수 없는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이 드러나는군.
④ 어려서부터 과오를 뉘우쳤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단 데서 '나'는 '나'가 부득이하게 행해야 하는 일과 그만둘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그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이 드러나는군.
⑤ 선(善)을 좋아한 '나'가 비방을 들었던 데에는 신중하지 못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의 행동거지가 해롭지 않은 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따라서 선(善)을 행함이 오히려 부득이한 일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음이 드러나는군.

24.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에서 화자의 성찰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다.
② [A]의 내 얼굴과 [D]의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화자 자신을 나타내며 화자의 운명을 드러낸다.
③ [B]에서 화자가 참회록을 쓰는 모습에서 과거의 회한이 드러나고,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고 있다.
④ [A]에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남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왕조의 유물이라 표현한 데서 화자의 희망을 드러낸다.
⑤ [A]에서 드러난 자기 인식은 [B]에서 참회록을 쓰는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2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고 싶지 않으나 그만둘 수 없는 일도 있고, 하고 싶으나 그만두어야 하는 일도 있음에 대한 '나'의 인식이 드러난다.
② ㉡: 자신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세상을 사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③ ㉢: 지금까지의 모든 세태가 자신의 운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지난날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④ ㉣: '나'가 삶을 사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고, 앞으로 얻을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대상이다.
⑤ ㉤: 부득이하지 않은 일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일임에도 그만두어야만 하는 상황의 조건이 드러난다.

26. (가)에 대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의 운명이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좌절감에 빠지고, '삶의 티끌'을 궁극적으로 지향하지만, 결국 이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다.
② (가)의 화자는 항상 '밤'이면, '태풍'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고, 자신이 지향했던 '산호도'에 갈 수는 없었으나, '지평선'을 '기오'른 이후, 화자의 절망적인 현실이 완전히 해소된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의 꿈이 '서해를 밀항하는 찡크'와 같이 불안정하고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결국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고, 자신이 지향했던 '지평선'을 오르는 것을 포기한다.
④ (가)의 화자는 항상 '밤'이면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오르면서 고달픈 삶을 겪어 왔지만, '시궁치'의 도움으로 '지평선'에 '기오르'며 잠시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⑤ (가)의 화자는 '거미'같이 비주체적인 삶을 살아왔음이, '소라 껍질에 붙어 왔'듯이 다른 이들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아왔음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에서 (가)의 화자는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 문학의 거두였던 이육사 시인과 윤동주 시인의 경우 암울한 시기에도 독립을 노래하고자 하였다. (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항해로, 자기 자신을 '배'로 비유하여 고통과 아픔만이 존재한 지난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는 데서 자신의 욕된 지난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철저한 실존적 자아 성찰이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높은 정신적 성숙이 드러난다.

① (가)의 '남십자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통하여 희망을 바라왔지만, 바랐던 희망과 요원했던 삶을 살아갔던 '나'의 좌절감과 슬픔을 드러내는군.
② (가)의 '깨어진 배 조각'은 '나'가 '나'의 인생을 형상화하는 소재로, '나'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나'가 앞으로 살아갈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③ (나)의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는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참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④ (가)의 '젊은 날'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남들같이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없었던 '나'의 슬픔을, (나)의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은 화자의 자신의 지난 삶의 기간에 대한 철저한 실존적 자아 성찰을 드러내는군.
⑤ (가)의 '태풍'은 '나'가 과거에 삶을 살아오면서 얻었던 상처와 아픔을 형상화하여 '나'의 고통을, (나)의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남아 있는 '내 얼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통해 화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쨌든 십 년이라면 한 밑천 잡으셨겠구려."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밑천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은 어때요?"

㉡"요보* 말씀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마는, 촌에 들어가면 대만(臺灣)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언제 가서 보슈…… 하하하."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궐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망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망국 백성이 된 지 ㉢근 십 년 동안 언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위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 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둥,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마는,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일 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에서나 부산·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이 가시게 할 때에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마는 그 때뿐이요,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칠 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 관념**을 굳게 의식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 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끓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긴요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마는,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중략)

다시 들려 들어오며 보니 찻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업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젖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줄 알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밉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나는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도, 분이 치밀어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뒈져버려라!

차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어다보인다. 차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풋볼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찌긋이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들려다 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염상섭, 「만세전」-

*요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비하하여 부르던 말.
*생번: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대만의 토족.
*하관: 일본의 항구 도시인 시모노세키를 나타냄.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목욕탕 안에서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이로 인해 일본인들이 당황하게 된다.
② '나'는 적개심과 반항심이 상대적으로 능동적이고 침착한 심리 상태에서 더 효과적으로 발현되는 것임을 깨닫는다.
③ '나'는 소학교에서 일본인 교사와 충돌한 끝에 퇴학 당한 후, 성인이 된 지금까지 독립운동에 대해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④ '나'가 일본에 있던 칠 년 동안 경찰관 이외에 다른 일본인들의 대우는 '나'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우게 하지 않는다.
⑤ '나'는 열렬한 애국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로 '나'가 망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점점 더 무색해진다.

2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조선 사람이 과거에 비해 똑똑해졌기에, 일본인이 속여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부당하게 장사를 했음이 드러난다.
② ㉡: 일본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당시 일본인이 가진 조선인에 대한 모멸과 비하가 드러난다.
③ ㉢: 일제 강점기 이후의 열악한 현실에서도 당시 조선인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도록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가 드러난다.
④ ㉣: 난로 안의 빨간 불길이 뱀의 혀같이 보인다는 데서, 당시 일제 강점기의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⑤ ㉰: 이미 공동묘지와 같은 처참한 식민지 현실에 살고 있는 조선 민중이 후일에 공동묘지에 묻힐 것을 걱정하는 데서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과 이에 대한 '나'의 비판이 드러난다.

30.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에 대하여 투영된 '나'의 염원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에서 먼저 깬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나'는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소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③ ㉮는 ㉯와 달리 일제 강점기 당대의 조선인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④ ㉮와 ㉯는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된 소재로, '나'의 인식을 통하여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나'의 각성을 유도한다.
⑤ ㉮는 ㉯와 달리 조선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연상시키는 소재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3·1 만세 운동 이전의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만세전」에서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직면하였던 민족적 현실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만세전」에서는 '나'가 세태를 관망하면서 지식인인 '나'의 내면 의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 통하여 지식인이었던 '나'의 성장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① '결박을 지은 여자'와의 상황에서 '순사'의 처지에 대한 나의 인식에서 연민이 드러나고, 이후 '나'가 지켜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하여 당대 민족 현실에 대하여 둔감해진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② '나'가 어릴 적에 '애국심'이 '열렬하였'으나 이후 '나'가 독립에 대해 소극적인 데서, 우리 민족이 직면하였던 현실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③ '나'는 '민족 관념'에 대한 인식을 일제 강점기 이후에 생각해 본 적 없고, 이에 대한 고뇌를 하지 않을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다는 데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④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시든 배춧잎'과 같다는 데서 당시 일제 강점기에 의식 없이 비굴하게 살았던 조선 청년들에 대한 연민과 반감이 교차하는 '나'의 정서를 드러내는군.
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뒈져버려라!'는 당시 의식 없이 비굴하게 살아가는 조선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의식과 지식인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그 시가가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양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사회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사회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했던 고전 시가들이 빈번히 발견된다.

(가)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日出猿生員(일출원생원)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猫過鼠盡死(묘과서진사)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黃昏蚊檐至(황혼문첨지)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 대네 夜出蚤席射(야출조석사)
-김병연, 「원생원」-

(가)에서는 남루한 옷차림의 화자가 지역 유지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 데서 지역 유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가)에서는 화자가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들을 동물들에 빗대는 우화적인 수법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때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생원', '진사', '첨지', '석사' 등의 한자어를 붙이고,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넌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鶻)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어 내닷다가 두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낼싀만졍 에헐질 번하괘라

(나)는 중장의 길이가 정해진 형식보다 더 긴 사설시조로, 당시 탐관오리의 수탈이 심했던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두꺼비와 다른 동물들 간의 위계를 표현하여 서민-중간 계층-최고 권력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의 두꺼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백성을 수탈하는 양반의 횡포와 백성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이 강대국의 침략에 외면하는 비굴한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와 (나)에서는 동물을 소재로 삼아 조롱하고 풍자하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다)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삼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제7수>
-정약용, 「탐진촌요」-

*이방: 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 속한 육방(六房) 가운데 인사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황두: 이방 아래의 말단 관리.
*누전: 토지 대장의 기록에서 빠진 토지.
*세곡선: 예전에, 나라에 바치는 곡식을 실어나르던 배.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다)에서는 당시 강진에서 귀양 살이를 하고 있던 다산이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목격하고 무자비하게 수탈함으로써 농민의 고된 삶을 더 힘

들게 만드는 관리를 고발하고 있는 데에서 다산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산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을 행하는 자인 목자, 즉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을 지시하는 「목민심서」를 편찬하였다. 「목민심서」에서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였으나 현실과의 괴리로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없었던 다산의 당대의 관리들이 백성을 잘 보살펴주길 바랐던 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탐진촌요」와 「목민심서」에 담긴 다산의 의도를 고려하면,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을 아꼈던 다산의 애민 정신을 엿볼 수 있다.

32. (나),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에서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당시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동일한 인물로 고정되며, 화자의 특성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전달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당시 시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화자의 말을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다)에서는 시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대조를 통해 시적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고, (다)에서는 직유법을 통해 시적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33. <수행 활동>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수행 활동>

선생님: 고전 시가 (나), (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화자가 비판하고자 한 당대의 사회상이나 화자가 바랐던 세상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다면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당대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요. 당대 사회상이나 화자의 염원에 주목하여 감상해보도록 해요.

학 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① (다)에서는 당대 백성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는 모습을 통해 목민관 정약용의 애민 정신이 드러나고 있어요.
② (나)에서는 '두터비'의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양반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③ (나)에서는 '두터비'의 모습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대의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④ (나)의 화자와 (다)의 화자는 모두 백성들이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지 않는 세상을 바랐을 거예요.
⑤ (나)의 화자는 (다)의 화자와 달리 외세 침략에 어떤 방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양반 계층의 비굴함을 비판하고 있어요.

34. (가)~(다)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가)의 '생원', '진사', '첨지', '석사'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하여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군.
② (나)의 '두터비'는 '파리'를 무는 대상으로, 당시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당시 양반들이 행했던 횡포를 드러내는군.
③ (나)의 '두터비'는 '백송골'이 떠있는 것을 보고 놀라 '두험' 아래로 넘어진 직후의 태도와 '두터비'가 '파리'를 문 직후의 태도를 대조하여 양반층의 허장성세를 드러내는군.
④ (다)의 '황두'는 '이방'과 상하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나)의 '백송골'과 상하 관계를 이루는 '두터비'와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다)의 '황두'는 백성에게서 수탈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탐관오리의 비겁함을 드러내는군.
⑤ (나)의 '파리'는 '두터비'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 대상으로서 (가)의 '고양이'로 인하여 죽는 '쥐'와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당시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애환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